



## 전반적인 포장지식 두루갖추길

### 변하는 시대에 맞는 포장개발 주력

이찬원 / 대상(주) 팩키지디자인팀 과장

**대**상(주)의 이찬원 과장은 “이번 2001 포장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. 아마도 포장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. 저 또한 포장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포장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고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.

제과 및 식품분야의 포장설계를 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비로소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하면서,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각오가 새로워집니다”라고 포장기술사에 합격 소감을 밝혔다.

이찬원 과장은 1987년 해태제과(주)에 입사하면서 포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. 또한 1990년 크라운제과, 1994년 대상(주)에 입사해 지금까지 포장분야에만 몸담아 온 이찬원 과장은 “시간이 지나고, 포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더욱더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, 그 중요성 또한 절실히 느껴집니다. 또 현 포장시장은 아주 협소하면서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부가가치면이나 틈새시장이 많아 외화벌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의 신제품들을 개발하여 제3의 수출시장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”라고 말했다.

덧붙여 “포장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포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며 “때문에 제품 경쟁력 뿐 아니라 국제간의 경제력, 글로벌·디지털 시대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대한 준비와 항상 거론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정부는 2003년부터 1회용품의 다품목에 한해 사용금지가 행할 계획이어서 제품 개발시 세심한 면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”라고 피력했다.

또한 이찬원 과장은 “포장분야의 기본적 이론의 재정립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대해 종합적 연구가 필요합니다. 이에 우리 포장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포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.”라고 덧붙였다.

이찬원 과장이 포장기술사로써 포장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 본다. ☐